



활명수부터 모나미까지... 한국 일상을 만든 히트제품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히트의 탄생

유승재 지음

활명수, 새우깡, 박카스, 도루코, 모나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브랜드들이다. 이들 브랜드에는 저마다의 역사와 대중의 취향, 스타일이 담겨 있다. 브랜드 흥수시대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제품과 브랜드가 있다. 특정 브랜드를 보면 사회



구성원의 관심사와 생활 모습,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브랜드는 소비자의 삶의 양식을 반영한다. 근대화와 함께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현하고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인기를 끄는 히트 상품이 만들어지고, 일부는 시대를 넘어 장수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활명수에서 아버지가, 다시 손자와 손녀로 이어지는 장수 브랜드에는 다양한 사회적 모습이 응축돼 있다. 세상이 바뀌어도 브랜드는 살아남기 마련이다. 히트 상품과 브랜드에 담긴 사회적 모습과 욕망을 담은 책 '히트의 탄생'은 일단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히트 상품의 역사와 브랜드 발자취를 더듬는 것은 생활문화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저자 유승재는 광고회사와 브랜드 회사를 거치며

마케팅, 브랜드 실무를 익혔다. 네이버에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총괄하며 브랜드와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1890년부터 1970년대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대표 제품들을 조명한다. 브랜드 변천사 외에도 광고, 일상의 풍경 등 다양한 이야기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생필품 브랜드', '주류와 제과 브랜드', '의약 브랜드', '하이테크 브랜드'가 그것이다. 먼저 1부에서는 불편한 살림살이를 편리하게 바꿔준 제품들이 등장한다. 박카스는 조연에서 주연이 된 최초의 화장품이다. 비록 2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다. 최초 등록된 화장품이자 상표로 기억하는 기성세대들이 많다. 일본 간장 상품이 시판되던 시절 '샘물처럼 솟아라'라는 뜻을 담은 샘표간장은 우리말 상표를 붙인

최초 간장제품이다. 또한 가장 오래된 식품 브랜드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출시 후 단숨에 국민 조미료로 등극한 미원과 이에 맞서 도전장을 던진 미풍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법정 분쟁까지 벌였다. 저자는 적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원은 "제품력과 가성비, 조미료가 주는 중독적 맛을 찾는 무의식의 본능적 입맛 덕에 업소 식당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2부에서는 주류와 제과 브랜드에 초점을 맞췄다. 해태제과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 "가난한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캐러멜, 웨하스 등 '과자'를 맛볼 수 있게 해준" 기업이었다.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준 국민 간식 삼강하드는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보릿고개를 넘어 먹거리 전성시대에 출시됐던 새우깡, 바나나우유는 세대를 초월해 찾는 간식을 가운데 하나다. 의약 브랜드를 다룬 3부는 활명수, 우황정심원,

이명래고약, 유희양행, 박카스에 대한 이야기다. 서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활명수가 있을 만큼 활명수는 "궁중의 생약 비방에 서양의 기술을 접목해 만든" 소화제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4부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다룬다. 세계 최고로 성장한 타이어 삼국지 한국, 금호,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우리나라 자전거 역사'를 만든 삼천리자전거, '남자들의 유희 사태를 해결해준 면도기' 도루코, 한 번은 씨뽀를 불펜 모나미 등의 역사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저자는 "브랜드는 여전히 살아 있지만 그 브랜드의 주인은 수차례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았다. 기업과 달리 브랜드의 영속성을 알려주는 현상이기도 하고, 브랜드에 성공한 브랜드의 가치를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위즈덤하우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이비드 보위의 삶을 바꾼 100권의 책 존 오코넬 지음, 장호연 옮김

록스타였으며 수많은 페르소나를 지녔던 연기자 그리고 혁신적인 패션 아이콘 데이비드. 1947년 런던의 브릭스터에서 태어나 2016년 사망한 그는 많은 이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이자 지성인이었다. 그의 히트곡 'Space Oddity'와 'Heroes' 등 그가 출현한 작품은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가교다.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책을 소재로 한 '데이비드 보위의 삶을 바꾼 100권의 책'은 그가 지향했던 예술세계를 엿보게 한다. '타임아웃' 수석 편집장을 지냈으며 '페이스'에서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존 오코넬이 저자다. 화려한 외면에 가려 주목 받지 못했던 보위는 생전 그의 작품세계를 이루는데 독서가 큰 역할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읽은 100권의 책 목록은 죽기 3년 전 2013년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보위 이즈' 전시회에서 공개됐다. 책의 목록은 다양하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부터 단테의 '신곡' 같은 고전, 구동독 작가 크리스타 볼프의 '크리스타 테를 생각하며'도 있다. 특히 그가 활동을 하던 시기 출판된 록 음악 비평서 '아일랜드로부터 알뜰밤'까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른다. 처음 '보위의 책들'이라는 목록이 발표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 책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100권의 책들은 보위의 인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많은 독자들이 그렇듯이 보위 또한 책을 통해 스스로 많은 것을 알아갔다. 영화를 찍을 때도 이동식 서가를 끌고 다니며 틈이 나면 책을 읽었다는 사실은 그를 보통의 예술가는 다른 이미지로 보이게 한다. <뮤진트리·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에밀리 디킨슨, 시인의 정원 마타 맥다웰 지음, 박혜란 옮김

에밀리 디킨슨(183-1886)은 사후 명성을 얻었던 미국 시인이다. 생전에 거의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고 청교도적인 독신의 삶을 살았다. 은둔 생활을 한 탓에 많은 이들에게는 은둔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시인이자 정원사이기도 했던 에밀리 디킨슨의 삶과 시를 엮은 '에밀리 디킨슨, 시인의 정원'이 나왔다. 책은 에밀리 디킨슨을 둘러싼 신화적 이미지를 깨고 일상 속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작가와 작가의 정원의 연관성에 대해 글을 써온 마타 맥다웰은 이번 책에서 디킨슨을 자연, 사람과 교감한 시인으로 불러낸다. 맥다웰은 조경 연구자로 시작해 '피터 래빗' 시리즈의 작가 비어트릭스 포터, '초원의 집'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로라 잉겔스 와일드, '비밀의 화원'의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등 작가와 정원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자는 디킨슨의 계절별 생활과 이와 관련된 시들을 소개한다. 계절에 따른 디킨슨의 생애 주기와 문학적 진전 등도 열거해 다면적으로 시인을 보게 한다. 특히 상실과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보내는 시인의 격려와 위로는 디킨슨의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한다. 저자에 따르면 디킨슨은 식물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여름을 가장 좋아했다. 특히 디킨슨은 학교에서 식물학과 지질학을 비롯한 자연사 수업을 들으며 아무추어 정원사이자 식물학자로 성장했다. 많은 이들과 교류하고 문학적 탐색을 하면서 '인생이 여름'을 보냈으며, 이후 정원의 가을이 소멸의 겨울을 준비하듯이 육체적 쇠약을 겪고는 은둔 생활을 한다. <시금치·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너를 닮은 사람 정소현 지음

"과거의 것들과 결별할수록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너를 닮은 사람' 중) 세상의 모순을 정확하고 기민하게 추적하는 정소현의 첫 소설집 '실수하는 인간' (2012)이 '너를 닮은 사람' (2021)으로 재출간됐다. 책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JTBC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의 원작 소설을 포함해 일부 표현을 다듬고 배치를 바꾼 소설 8편이 수록됐다. 저자는 2008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젊은작가상, 김준성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다. '너를 닮은 사람'의 '나'는 가난에 허덕이던 유년기를 거쳐 자신이 절실히 바라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남편 집안의 든든한 재력을 기반으로 한 교외의 고즈넉한 전원 주택, 물심양면 자신을 지원해주는 무던한 남편,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준 두 아이, 인정 받는 유학파 화가라는 직업까지. 그러나 어느 날 잊고 있던 기억이 '나'를 찾아온다. 책은 '너를 닮은 사람' 외에도 '양장 제본서 전기', '폐쇄되는 도시', '실수하는 인간', '돌아오다', '지나간 미래', '이곳에서 얼마나 먼', '빛나는 상처' 등이 수록됐다. 소설 속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에 붙들려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근원을 찾아 헤매거나, 지우고 싶은 과거를 무의식중에 외면해버린다. 저자는 그들이 풀이키거나 숨겨 두는 과거를 보여주면서 비틀린 인물들의 심리를 파헤친다.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는 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책의 말미에는 문학평론가 김형중의 해설 '실수하는 사회, 실수하지 않는 인간'도 담겼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